

# ‘목포 고교생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경찰 수사 본격화

### 무면허 운전 학생 특정 안 돼...음주운전 여부 등 정밀감식 심야도심 큰길서 렌터카·승용차 충돌...3명 사망·4명 중상 “업체사장이 미성년자임 알고도 렌터카 내줬는지 집중 추궁”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교생들이 렌터카를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 사고를 내 7명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2대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2003년생 고교 1학년생 5명이 탔던 렌터카의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고 직후 탑승자 5명 모두 상태가 위중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아직 운전자는 확인 되지 않았다.

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파손이 심각, 영상 판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자 차량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으며, 승진 학생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가려 내기로 했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빠르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렌터카와 충돌한 상대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몰고 있었고, 실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이 도용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지역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점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렌터카 업체 임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신원 검증 등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한다. 업체 사장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렌터카를 내줬는지를 집중 추궁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주보고 달리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 만큼, 중앙선 침범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렌터카를 쓴 학생이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 대어 과정 상, 업무 측 책임은 없는지도 엄밀히 따져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1시42분께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앞 횡단 3차선 도로에서 동갑내기 고교생 5명이 탑승한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등학교생 5명 중 2명이 숨지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등 총 3명이 숨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2분께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고교생 무면허 렌터카·승용차 충돌 사고와 관련,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고로 렌터카 탑승 학생 2명과 승용차 동승자 등 3명이 숨졌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졌다. 나머지 학생 3명과 승용차를 몰았던 대리운전기사 등 4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본부

## 교육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엄중...재발 방지책 마련”

靑 청원 “기숙사에서 성폭력 시달렸지만 학교 대응 미흡”



교육부는 15일 기숙사에서 성폭력에 시달리다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숨진 중학생의 부모와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 6월부터 전남의 한 대안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나 학교 등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끝내 아들이 숨졌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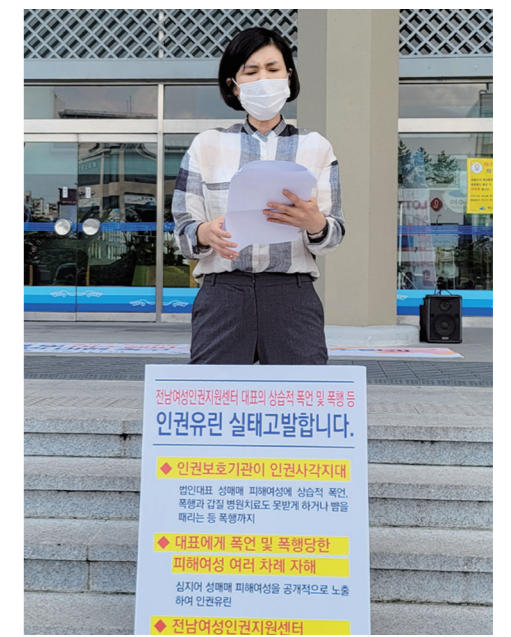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월 게시돼 한 달 간 총 25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 차관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 조사 결과, 학교에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며 “학교 법인은 학교장에 정직 3개월, 교감에 감봉 1개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1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고,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교육청의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다”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여성에 갑질

센터 직원, 대표의 폭언·폭행 폭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가 여성들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5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직원 김모(활동가씨는 여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보호기관이 인권의 사각지대였다”면서 “법인 대표 김모씨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대표는 찾아온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인권 유린을 자행했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은 부끄러움에 여러차례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여주시 담당 부서에 한달 전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조치가 없었다”며 센터와 관리 감독 기관인 여주시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씨는 “센터 대표 김모씨의 행태를 보다 못해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바로 잡기를 원했으나 김 대표가 내용증명 우편 수령을 거부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나무한그루’ 식당에서 허리가 아파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요구했는데도 김 대표는 병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업무시간 외 자신의 아들에게 보낼 반찬을 같이 만들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력도 착취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인권활동가로서 단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등 배제하고 업무 꼬투리를 잡으며 갑질을 하는 등



더 이상 자정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 여성 등 5명을 보호하고 있다. 외부에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상담과 재활 활동을 하는 5명 등 모두 10여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센터 직원 등 4명의 활동가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씨의 폭로에 대해 여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한달 전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오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자활센터 내부 공동작업의 일환인 수세미 제작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수세미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는’는 질문이었다”면서 “센터 내 폭언과 폭행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봉우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